민주통합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가 4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9명의 당권주자들이 손을 맞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총·대선 승리… 정권교체 내가 적임"

■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 광주합동연설회

'노풍 진원지' 광주·전남서 변화 불씨 지펴야

"광주·전남 없인 정권교체 어렵다" 지지 호소

오는 15일 민주통합당 지도부(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합동연설회가 4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지난달 26일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김부겸·문성근·박지원·박영선·박용진·이강래·이인영·이학영·한명숙(가나다 순) 등 당권주자들은 이날 연설회에서 정치혁명, 혁신과 공천 혁명을 통한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역전극이 시작된 '광주'를 상기하며 광주·전남 지역민의 표심을 공략하는 데 집중했다.

아울러 광주·전남이 '노풍 진원지'이었던 만큼 각 후보들은 이번 연설회가 경선 윤곽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생각한 듯 광주와의 인연 등을 소개하며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첫 연사로 등장한 이인영 후보는 "2012년을 민주통합 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점령할 것"이라며 "승리를 위해서는 이전의 야당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고, 그 변화의 신호탄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민주당에는 기층 민중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없었다"며 "기층 민중이 있는 변방에서부터 대한민국 중심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공천혁명을 해야 한다"고 인적 쇄신론도 강조했다.

이학영 후보는 "민주통합 당이 거듭나려면 호남에서 정치 혁명,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며 "내가 새로운 대표가 돼서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처럼 지지받는 민주통합당을 만들겠다"지지를 호소했다.

김부겸 후보는 "3선을 한 경기 군포의 지역구를 포기하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오는 4월 총선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아성, 한나라당의 심장 대구에 가서 지역주의와 싸울 것"이라며 "올해 총선 승리를 위해 김부겸에게 날개를 달아달라"고 표심을 자극했다.

박용진 후보는 "이번 지도부 경선 결과가 도로 열린우리당, 도로 민주당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하느냐"며 "민주화, 개혁을 넘어 한국 사회를 진보적으로 밀고 가야 한다"며 "진보의 대표주자인 박용진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성근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모바일을 통해 선거인단에 등록한 분들부터 누적해서 4월 총선 경선에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라며 "총선에서 추가되고 대선에서 추가되면 400~500만명의 당원을 가진 탄탄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월 총선에서 안정적인 다수당을 이루고 6월 국회 개원 즉시 국정조사권과 특별검사제를 동원해 이명박 정권의 작태를 완전히 밝혀낼 것"이라며 "BBK와 내곡동 땅 등이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가 밝혀질 경우 그 즉시 탄핵에 돌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혁명 호남에서부터… 인적 쇄신론 강조

구·곡·담 주민들 '선거구 폐지' 항의 시위도

박지원 후보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경제인 만큼 북한의 인맥을 동원해 북한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박지원 뿐"이라며 남북관계 전문가임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어 "당권 주자 9명 중 유일한 광주·전남 후보"라며 "광주와 전남 없이는 정권교체도 어렵다"며 지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영선 후보는 "정봉주 전 의원이 감옥에 가면 박근혜도 감옥에 가야 하고 에리카 김도 감옥에 가야 한다"며 "지난 4년간 국민의 입을 막는 MB 정권에 의해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어 "당 대표가 되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재벌개혁을 이루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검찰개혁을 이룰 것"이라며 "특히 국민에게 공천을 모두 돌려주는 선거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래 후보는 "당내 밑바닥에는 탈호남을 하면 전국전당이 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며 "경선 결과가 발표될 때 탈호남이 아니라 호남이 없을 수도 있다. 호남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명숙 후보는 "10년 전 민주정부를 탄생시키고 어려운 역사의 맨 앞에 섰던 사람들이 광주·전남 지역민"이라고 강조한 뒤 "여러분과 함께 세대와 계층, 지역을 담는 국민정당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은 한명숙 뿐"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연설회에는 당원과 지지자 등 3000여명이 참여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의 이름을 연호하는 등 열띤 선거전을 펼쳤으며, 연설회에 앞서 담양·곡성·구례 주민 20여명이 선거구 개편안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30 잡아라" 너도나도 SNS 소통

모바일투표 신청 쇄도… 민주통합 전대 최대 변수

당권주자들 '나꼼수' 정봉주 활용 선거전 불붙어

"젊은층을 잡아라" 민주통합당 1·15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이 20~30대 표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전대보다 청년층의 참여가 높기 때문이다. 현장투표가 아닌 모바일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선거인단이 4일 현재 93.2%를 차지할 정도여서 청년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당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또 모바일 투표의 경우 제도적으로도 연령 보정을 통해 39세 이하 선거인단 비율이 원래 인구비율인 38%를 유지하도록 해 젊은층의 표심이 전대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전대 후보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젊은층이 자주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소통 강화는 기본이고 젊은이의 관심 분야를 활용한 선거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우선 인터넷 팟캐스터 '나는 꼼수다'와 BBK 명예훼손 판결 확정으로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을 활용한 선거전이 대표적이다.

정 전 의원이 수감되기 전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던 한명숙 후보는 조만간 정 전 의원을 면회하는 등 자신에 대한 정치적 박해를 부각하며 정 전 의원과 동질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 전 의원과 BBK 저격수로 활동했던 박영선 후보는 지난 3일 정 전 의원 구출과 '정봉주법 입법'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부겸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정 전 의원 사면 촉구 결의안을 60명의 의원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 전대 후보들은 젊은층과 교감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대교체론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박지원 후보는 자신을 슈퍼맨이나 정 전 의원을 구할 인물로 묘사한 만화를 트위터에 올리며 청년층과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

문성근 후보는 활발한 SNS 활동, 스마트 유세단 발족 등 청년층을 겨냥한 득표전을 가장 왕성하게 벌이고 있다.

세대교체론을 꺼내든 이인영 후보는 트위터에 '영 스토리'라는 커뮤니티를 개설, 2040 연합을 구현할 적임자임을 부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강래 후보는 반값등록금, 청년실업 등 청년층의 과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SNS 등을 통해 전파하고 있으며, 박용진 후보는 최연소 후보라는 점을 내세워 세대교체론을 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판에…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흥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평내호평역 앞):070)8829-9903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품질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옆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